

# 적대적 M&A(V)

## 적대적M&A에 대한 방어방법

- 사전적 방어방법을 중심으로



지난편(I~IV)에서는 적대적 M&A를 위한 공격방법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. 이번호에는 적대적 M&A를 방어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.

일반적으로 적대적 M&A의 경우 공격자보다는 방어자가 훨씬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.

그것은 권력다툼에서 현 정권자가 현 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반대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현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.

기업에서 현경영진은 기업의 경영권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, 방어환경을 쉽게 조성할 수 있으나, 공격자는 현경영자가 원하지 않는 경영권박탈을 위해서는 이사진의 강제해임 등에 필요한 2배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.

결국 M&A가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는 현 경영권자(일반적으로 대주주)가 자발적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느냐,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느냐의 차이이다.

